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설명자료

I. 서론

■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DC형 퇴직연금시장의 퇴직연금사업자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경영전략을 모색함.

○ 그동안 DB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해 온 보험회사의 경우 DC형 시장이 성장할수록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잠재 성장성이 높은 DC형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함.

○ 특히, 본 보고서는 DC형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제반 환경변화의 분석과 선진 금융회사들의 운영사례 조사를 하였으며, 퇴직연금사업자, 기업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조사 및 실증분석을 통해 DC형 퇴직연금 운영방안을 제시함.

II.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

■ 첫째, 제도적 변화 측면에서 살펴볼 때 건전성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강화함에 따라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한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메리트 증가로 귀결됨.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퇴직급여채무가 중간 정산하는 것과 유사한 DC형 제도에 대한 장점이 크게 부각될 것임.

- 둘째, 자산운용 환경변화 측면에서 현행 양적 중심의 퇴직연금 규제가 점진적으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의무에 기초한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주식 등의 직접투자가 불가능한 현행 DC형 제도의 자산운용이 다양한 투자 상품과 조합이 가능한 자산운용환경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임.
- 셋째, 노동시장 환경변화 측면에서 최근 실력 및 성과 중심의 고용관계로 변화됨에 따라 DC형 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증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이 길지 않고 조기퇴직 및 이직이 일반화되어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직에 따른 통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넷째, 수요자 가입행태 변화 측면에서 금융 및 투자에 대한 이해도 증가, 자기 책임하에서 자산운용 선호 등으로 DC형 제도의 선호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다섯째,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쟁은 기업규모별 경쟁에서 기업속성별 자사의 핵심경쟁력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쟁양상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III. DC형 시장 및 퇴직연금사업자 현황

-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DC형 제도 가입기업 수는 전체 94,455개 퇴직연금 가입기업 중에서 34,904개 기업이 가입하여 37.0%의 비중을 차지함.

- 기업규모별로는 30인 이하의 기업에서 가입률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이 주로 가입하고 있음.
- DC형 제도 적립금은 2005년 말 대비 2.8배 이상 성장한 5조 1,530억 원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에서 17.7%의 비중을 차지함.
- 금융권역별 시장점유율은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60.8%를 차지하여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증권사(20.6%)가 보험회사(18.2%)의 점유율을 추월함.
- DC형 제도 적립금의 자산계약은 83.5%가 신탁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험권의 신탁계약은 1.4%에 불과함.

■ 금융기관의 DC형 사업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기 위해 영업 중인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주요 2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운용조직 및 인프라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DC형 퇴직연금의 시장진출을 위한 대비태세가 미흡한 가운데 타 금융권의 운용조직 및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음.
- 운용상품 제공 측면에서 보험회사는 맞춤형상품과 상품개발을 위한 업무 제휴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며, 보험회사는 재무설계에 가장 초점을 두는 반면, 은행은 상품서비스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음.
- 목표시장 및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은 중점 목표기업(대·중·소기업)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관계사를 대상으로 한 영업전략에 치중하고 있음.
- 공동가입 방식인 복수사용자제도에 대한 대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험회사와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경우 마케팅 준비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IV. 주요국의 DC형 퇴직연금 운영사례

■ 미국은 1974년 「ERISA법」이 제정되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DB형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성과중심의 고용환경 및 주식시장의 성장, 기업의 책임부담 등으로 점차 DC형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미국의 확정기여형제도의 종류에는 기업 및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1978년 세법 401(k) 조항에서 이름을 딴 401(K), 403(b)와 457, Keogh, Money Purchase Pension Plan, Profit Sharing Plan, Stock Bonus Plan 등으로 다양함.
- 미국의 총 은퇴 관련 자산규모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16조 달러 규모이며, 이중 DC형 제도가 4.1조 달러로 IRA와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DC형 퇴직연금은 금융위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09년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임.
- DC형 퇴직연금자산의 50% 이상이 뮤추얼펀드(Mutual Funds)에 투자되고 있는데 이 중 60%에 해당하는 2.5조 달러가 주식형 펀드에 투자되며,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76.7%가 국내형 주식형 펀드에 투자됨.

■ 미국 보험회사들은 DB형 제도가 주류를 이루던 1980년대까지 은행과 함께 퇴직연금시장 내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다가 최근에는 자산운용사의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 최근에는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펀드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임.
- 최근 보험회사들은 자산운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터넷 기반의 제도 운영 관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함.

- 또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일괄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략적 제휴를 통한 타사 상품의 제공, 합성GIC 등 신상품 개발을 통한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 채널특성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및 보험상품을 결합한 상품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일본은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한 장기불황, 성과중심의 노동환경 변화와 사적연금 역할제고를 통한 공적연금의 재정립,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등으로 기존 퇴직연금의 기능을 축소한 DC형 제도가 2001년 시행됨.

-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는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가입하는 단독형과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가입하는 방식인 복수형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가입방식에 의해 DC형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일본은 우리나라의 퇴직보험과 유사한 적격퇴직연금의 폐지 예정과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가입자들이 DC형 제도로의 전환이 활발하며, 가입률이 2003년 4%에서 18%로 빠르게 성장하여 총 312만 명이 가입함.
- DC형 제도의 적립금 규모는 2002년 1,543억 엔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말에는 3조 9천억 엔으로 성장하였으며, 자산구성비는 예·저금 42.2%, 유가증권 37.8%, 보험상품 20%의 순임.

■ 일본의 퇴직연금사업은 과거 구재별 산하의 특수 관계에 있던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들 간의 자본, 상품, 채널, 아웃소싱 업무 등에서 긴밀히 상호협력하고 있는 실정임.

- MUFG(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은행그룹은 명치생명그룹, 동경해상그룹, 대동생명, 증권사 등과, 미즈호그룹은 다이이치생명, 미즈호연금 등과, 미즈이스미토모(三井住友)은행그룹은 스미토모생명, 미즈이스미토모해상그룹 등과 경쟁관계와 협력관계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 니혼생명그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자들에 대한 이원화전략, 그룹 내 전사적인 자원 재분배를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일괄서비스 전략, 자산관리회사의 공동설립 등으로 DC형 시장에서 M/S 3위 규모를 차지함.
 - 특히, 니혼생명은 그룹 내 관계회사 및 타 금융회사와 전략적 제휴방식으로 번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핵심 업무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나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타 회사에 재위탁함.
- 스미토모생명은 미즈이스미토모은행그룹의 산하 금융회사와 공동출자하여 2000년 DC형 퇴직연금 전문회사인 J-PEC(Japan Pension Navigator)을 설립하여 DC형 연금의 일괄서비스를 제공함.
- 동경해상그룹은 대기업시장의 경우 신탁은행 및 생보사 등 선발 금융회사와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DC형 연금을 특화하는 전략을 추진하여 M/S 9위 규모를 차지함.
 - 동경해상이 개발한 중소기업 전용 종합형 DC연금은 별도의 규약을 설계할 필요 없이 기존의 정형화된 종합형 규약에 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부분만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는 표준규약형 종합형 DC형 제도를 개발함.
- 손보저팬은 DC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증권회사 설립을 통해 DC형 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M/S 10위 규모를 차지함.
- DC형 제도의 운용상품으로 도쿄해상, 손보저팬, 아이오이손해보험 등에서 개발 및 취급되는 적립형상해보험이 DC형 도입 기업 중 1/3을 차지하는 등 크게 확대되고 있음.

V. DC형 퇴직연금의 수요자 분석

■ 설문대상 및 내용

- 보험회사의 DC형 시장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DC형 제도 수요자인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함.
 - － 기업대상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08년 「사업체패널조사」를 사용하여 기업특성별 선호하는 퇴직연금 형태에 대해 실증분석 함.
 - － 근로자대상 설문조사는 가입 및 전반적인 지식, 자산운용 및 상품, 금융기관 선정,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가입선호도, 연금수급 및 노후준비 등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함.

근로자 설문 대상 및 내용

구분		세부내용
설문 대상	근로자	20대 이상 근로자 900명
설문조사 방법		면접조사
설문조사 형태		기입식, 단답식, 체크식, 5점 척도식
설문조사 기간		2010. 11. 10~2010. 11. 30
설문 내용		퇴직연금 가입 및 전반적인 지식
		자산운용 및 상품
		금융기관 선정
		개인퇴직계좌 가입선호도
		연금수급 및 노후준비
		노동시장 및 기타
		인구통계적 변수

■ 분석방법 및 절차

- 제1단계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단계로 각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Partial Effect)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활용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함.

■ 기업대상 분석결과

- 분석결과 전문직 비율이 높고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DC형 제도를 선호하는 반면, 매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고령근로자가 많을수록, 고용안전협약이 있는 기업, 그리고 사업기간이 긴 기업일수록 DC형보다는 DB형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의 기술적 분석결과

- 분석결과 DC형 제도 가입자 중에서 상당수가 이미 추가납입 중이거나 추가납입 의향 있는 것으로 나타나 DC형 퇴직연금의 가입 선호와 함께 추가가입을 통한 시장 성장 예상됨.
- 자산운용형태는 원리금보장 중심이지만 실적배당형도 40%를 상회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DC형을 선택한 주요 원인으로 수익률 제고 및 스스로 자산운용을 하는 메리트가 나타남.
- 자산운용 시 애로사항으로 원금손실에 대한 불안감과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부족과 낮은 수익률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고려요인으로 장기적 안정적인 자산운용 능력, 전문성, 재무건전성, 수익률, 서비스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에서 증권사로,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로 이동이 많은 반면, 타 금융기관에서 보험사로의 이동은 매우 미미함.
- 퇴직연금 운영에 있어 자산운용상품 변경 가능성 높고, 건강보험 연계 상품 선호 및 라이프사이클 펀드(Lifecycle Fund)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 퇴직연금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퇴직적립금 수령형태로는 주로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를 선호하고 있음.

■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의 통계분석 결과

- 추가불입과 관련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혼자, 건강한 근로자, 직장의 안정성이 높고 수입 증가할수록, 운용수익률이 높을수록 DC형 제도에 대한 추가불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운용자산 형태와 관련하여 젊은 근로자, 남성, 기혼자, 대학졸업, 서울 거주, 건강하고 수입이 많은 근로자는 실적배당을 선호하고 있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위험자산 선호도 증가하나 증가하는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점감형태임.
- DC형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관련하여 젊은 20~30대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확률이 높고, 대기업, 맞벌이, 주식투자하는 근로자들도 변경확률이 높으며, 수입이 많거나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은 근로자는 변경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퇴직연금사업자의 선호연속성을 분석한 결과 DC형 퇴직연금사업자로 선택한 금융기관을 이직하여 퇴직적립금을 통산한 이후에도 유지할 가능성이 보험회사, 은행, 증권사 각각 7.8배, 7.2배, 8.6배에 달함.

VI. DC형 퇴직연금 운용방안

■ 시장진입 측면

- DC형 시장 자체의 잠재 성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DC형 시장에서 파생되는 IRA, 연금시장, 재무설계시장을 감안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DC형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일부 시장을 주도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퇴출되는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지속적인 투자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경쟁력을 충분히 제고할 수 없는 금융기관은 시장진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장진입을 결정한 금융기관은 기업 및 근로자 유치, 유치한 근로자의 유지, 수익성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모색해야 함.

■ 상품운용 측면

- 첫째, 두 개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혼합번들링 전략을 통해 보험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며, 먼저 기업을 대상으로 상품개발이 이루어진 다음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 제1단계로 생보사는 단체상해보험을 활용하며, 손보사는 단체상해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단체종합보험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제2단계로 실손의료보험 및 정액형건강보험(특약), 종신보험,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험상품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 조합이 필요함.
- 둘째, DC형 제도가 DB/IRA보다 실적배당형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 향후 DC형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실적배당형 중심의 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므로 라이프사이클 펀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매번 근로자가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변경되는 디폴트옵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보험회사가 타 금융업권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는 자산소진기의 운용 상품을 기업 및 근로자 유치에 활용할 수 있음.

■ 자산운용 역량 및 이미지 제고 측면

- 자산운용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수익률을 위해 고금리 제시의 영업전략보다는 실적배당상품 제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도 필요함.

-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자산운용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컨소시엄 형식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공동으로 가입을 유치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산운용 전문성 제고 방법

구분	투자비용 (리스크)	수익	대상 보험사
자산운용사 설립	높음	높음	대형사
컨소시엄	낮음	낮음	중소형사 및 대형사
타 금융회사상품 편입	낮음	중간	중소형사 및 대형사

- 퇴직연금사업은 실질적인 전문성 이외에도 전문성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보험회사처럼 전문 퇴직연금기관 또는 DC형 전문 퇴직연금기관을 설립하여 시장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전문인력 및 판매조직 활용 측면

- 보험회사의 경우 타 금융권보다 전문 및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며, DC형 퇴직연금 가입기업이 중소기업 위주에서 대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특화된 법인영업조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개인영업과 영업전략이 유사하므로 혼합번들링 상품을 활용한 설계사 조직의 역할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복수사용자제도 활용

- 정부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DC형 제도에 복수사용자제도의 도입을 「근퇴법」 개정안에 포함함.

- 일본 등에서 활성화는 복수형, 연합형, 표준계약형 등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가입 및 운용관리 수수료 등의 비용감소’ 및 ‘규약프로세스 작업 감축 등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해야 함.

■ 사전·사후관리 서비스

- 사전·사후관리 서비스의 중요성은 기업 및 근로자의 유치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유지율 개선 및 수익창출 측면에서도 중요함.
- 운용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고도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온라인에 기반을 둔 서비스는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40~50대 근로자들을 위해, 계좌잔고 및 수익률 확인, 운용상품 변경 등의 업무를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콜센터 운영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